



미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생충 구제에 여념이 없는 인그램(25세)양. 오늘도 현미경과 씨름하느라 영일이 없다.

■ 르 보

寄協 全南지부에 근무하는

美 평화봉사단원

인그램 (Leslie A. Ingram) 양을  
찾아서

“한국사람 기생충 감염을 매우 높습니다. 빨리 기생충 없애야 됩니다”

지난 3월 15일 부터 한국기생충 박멸협회 전남지부 검사원으로 근무해온 미국 평화 봉사단원 「인그램」(25)양은 우리나라 기생충 박멸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이름 “임애실”이라는 그녀는 지난 1974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생화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그 이듬해인 1975년 4월 20일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국 평화봉사

단에 입단 했단다.

「인그램」양은 「센프란시스코」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한국을 지원, 그해 7월 1일 全南靈岩군 보건소 결핵관리 요원으로 배치됐었다. 靈岩군 보건소에 배치된 인그램 양은 언어와 풍습 그리고 의식주가 다른 이질적인 생활에 적응 하는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의지와 신념으로 고난을 겪고 일어섰다고 한다. 하루 5km~10km를, 때로는 자전거로 달려거나 걸어서 산간벽지 결핵 환자를 관리해야 하

는 고된 일과는 한국 사람들의 무한의 친절이 그날의 고된 피로를 없애 주었다고 슬회한다.

그러나 이제는 책도 볼 수 있고 등산등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이나마 있다는 「인그렘」양은 「기협전남지부 근무가 흡족한지 밝게 웃는다.

165cm의 날씬한 키에 가름한 얼굴의 소박한 미녀 타입인 「인그렘」양은 한국말 해득력이 30%정도.

인그렘양의 하루 일과는 상오 9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자기가 할 검사물을 10분 동안에 정리한다.

그리고 9시 정각이 되면 검경에 들어가는데 근무 시간만은 그누구와도 잡담을 꺼리며 한치의 헛점도 없이 현미경에 초점을 모아 기생충을 검사 하지만 12시 점심 시간이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집어치우고 徐仁鍾 사무국장이 가져온 도시락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인그렘」양은 1시간 동안의 점심 시간에는 동료 직원과 잡담도 하고 등부한 위트로 전직원을 웃기는 등 어설픈 한국말은 국적을 초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존대말과 준말의 뜻을 구별못한 「인그렘」양은 이따금 큰 실언을 한다. 사무국장님 진지 잡수셨습니까?의 인사말을 사무국장님 식사했냐?라고 전직원 앞에서

인사를 하는등 존대말을 구사못해 때때로 폭소를 자아내지만 직원들의 교정으로 한국어 실력은 놀랄만치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시간 관념과 책임감 그리고 준법정신이 강해 직원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아온 「인그렘」양은 이제 한국의 요리 솜씨도 대단하다고 자랑한다. 김치를 척척 담그는가 하면 심지어 수정과까지 만들어 생일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할 정도의 실력 소유자! 한국 음식중 불고기가 제일 맛있으나 비싸서 사먹지 못한다는 인그렘양은 비빔밥을 즐겨 먹으며 한달에 평화봉사단에서 보내온 활동비 6만원으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

인그렘양이 기협 전남지부에서한 기생충 검사 전수는 7월 15일 현재까지 5만 6천여 건을 처리했는데 이 처리 전수는 아주 숙달된 임상병리사의 검사 전수와 거의 맞먹는다고 검사소장 조병환씨는 말하고 있다.

오는 77년 7월에 임기를 마치고 귀국 하계될 인그렘양은 현재 켈리포니아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는 약혼자와 곧바로 결혼할 예정이며 자녀는 1남 1녀 만을 가질 계획인데 자기가 귀국하기 전에 한국의 기생충 감염율이 0%로 떨어 졌으면 좋겠다고 기생충 구제 열의를 촉구한다.